

인지의미론의 관점에서 본 개념화에 대한 이해

허철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과학연구를 혁명실천과 결합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사회과학리론을 새로운 높이로 더욱 발전풍부화시켜야 합니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자연과학뿐만아니라 사회과학부문에서도 연구의 폭과 내용이 날을 따라 넓어지고 세분화되어가고있다.

인지의미론도 그러한 연구부문중의 하나로 출현하여 오늘 하나의 학문으로 등장하고있다. 인지의미론에서는 언어의 의미가 개념화를 통하여 형성되고 발전풍부화된다고 간주하므로 개념화에 대한 문제를 특별히 중요한 문제들중의 하나로 취급하고있다.

개념은 사물현상의 일반적이며 본질적인 징표에 대한 지식을 담고있는 사고형식이다. 고전적인 개념화리론의 기본원리는 크게 다음의 3가지로 함축하여 설명할수 있다.

첫째로, 개념은 일반적이며 본질적인 징표를 가지고있다.

둘째로, 개념은 자기에게 고유한 외연을 가지고있다.

셋째로, 개념에 반영된 매개 요소들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있다.

우선 개념이 일반적이며 본질적인 징표를 가진다는것은 개념에 반영된 대상들이 일정한 필요충분징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실례로 일반3각형과 바른3각형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필요충분징표들이 있어야 한다.

① ㄱ) 닫힌 평면도형이다.

ㄴ) 세개의 변을 가진다.

ㄷ) 아낙각의 합이 180° 이다.

② ㄱ) 닫힌 평면도형이다.

ㄴ) 세개의 변을 가진다.

ㄷ) 세변의 길이가 같다.

ㄹ) 세 아낙각의 크기가 같다.

위의 ①과 ②는 도형이 일반3각형이거나 바른3각형으로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징표들이다. 뿐만아니라 그것이 일반3각형이나 바른3각형만을 규정하는데서 충분하므로 각각 일반3각형과 바른3각형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징표들로 된다. 그러므로 한 개념이 가지고있는 필요충분징표는 개념에 속하는 대상들이 가지고있는 공통적이며 본질적인 징표들을 의미한다.

또한 개념이 자기에게 고유한 외연을 가지고있다는것은 일단 규정된 개념은 자기의 고유한 대상모임을 반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실례로 옹근수는 2로 말끔히 나뉘여지는데, 나뉘여지지 않는가에 따라 짝수와 홀수로 가를수 있는데 이때 둘사이에는 서로 뚜렷한 경계선이 그어진다. 즉 옹근수가운데는 짝수로 되면서 동시에 홀수로도 되는 수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개념에 반영된 매개의 대상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는것은 하나의 개념에 반영된 대상들이 서로 동일한 징표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같은 하나의 개념

에 반영되는 대상들에 한해서는 어느 대상이 다른 대상과 질적으로 차이난다는 문제가 논의되지 않으며 서로 동등한것으로만 본다는것이다. 그 이유는 개념에 반영된 모든 대상들이 서로 동일한 징표들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실례로 고전적인 개념화리론에서는 《새》라는 대상에 대하여 논의할 때 《제비》나 《박새》, 《펭귄》과 《타조》 등이 다같이 하나의 《새》라고 하는 개념에 속하는것들이기때문에 서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인 개념화리론은 점차 언어로 표현되는 수많은 사물현상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서 일정한 부족점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로부터 1950년대 후반기부터 고전적인 개념화리론의 제한성을 밝혀내려는 여러가지 시도들이 있었다.

고전적인 개념화리론의 기본원리에 대한 제한성을 밝혀내려는 시도들은 그후 개념화 문제를 인지의미론적으로 분석하는데서 출발적인 전제로 되었다.

인지의미론에서는 무엇보다먼저 개념화를 단어라고 하는 언어적단위를 리용하여 객관적인 사물현상을 일반화하거나 구별하여 파악하는것으로 이해한다.

사고의 기초인 개념은 단어를 매개로 하여 형성되고 표현되며 전달된다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개념은 우선 단어를 매개로 하여, 단어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단어는 개념형성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며 단어가 없이는 개념이 형성될수 없다.

개념은 또한 단어를 통하여 표현되며 전달된다.

과학적사고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사물현상의 일반적이며 본질적인 징표는 인간의 의식에 반영되며 주어진 사물현상에 대한 개념을 형성한다.

인간의 의식속에 형성된 개념이 객관적으로 표현되고 전달되자면 물질적인 형태를 띠어야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개념을 단어라는 물질적형태에 담아서 고착시키고 단어를 통하여 개념을 표현하며 전달한다.

일반적으로 개념은 단어에 기초하여 형성되며 단어를 통하여 표현되고 전달된다.

개념과 단어는 불가분리적인 련관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서로 같은것은 절대로 아니다.

개념은 대상과 련결시킬 때 밝혀질수 있다. 그러나 단어의 의미는 언어의 체계안에서 밝혀지며 단어의 의미를 규정하는 요인들로서는 개념뿐아니라 더 많은 언어적요인들이 관계된다. 그러므로 단어의 의미가 포괄하는 범위는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보다 훨씬 넓을수 있다.

이처럼 개념과 단어는 하나로 통일되어 불가분리적인 련관속에 존재하면서도 서로 구별되며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개념과 단어가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 하나로 통일되어있지만 여기에서 규정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개념이라고 할수 있다. 그것은 바로 단어의 형성과 소멸과정이 개념에 의하여 규정되며 제약되는데서 나타난다.

개념은 사람들의 인식능력이 높아지고 사물현상 그자체가 변화발전하는데 맞게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된다.

실례로 《영화》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 그것이 담고있던 개념은 상대

적으로 아주 빈약한 활동사진을 가리키는데 불과하였다. 《영화》의 출발적원천은 흑색의 무성영화였다.

그후 과학과 기술이 영화분야에 광범히 도입되어 영화라는 단어는 변화되고 풍부화된 개념을 완전히 표현하기에 불충분한것으로 되었고 점차 보충적인 단어들과 결합되어 사용되게 되었다. 즉 《유성영화》, 《천연색영화》, 《립체영화》, 《광폭영화》 등으로 표현됨으로써 풍부화된 개념을 완전히 표현할수 있게 되었던것이다.

한편 새로운 개념들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며 이미 있던 낡은 개념들은 사멸되기도 한다.

이로부터 새로운 개념이 발생하고 낡은 개념이 소멸되는데 따라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것이다.

인지의미론에서는 다음으로 개념화를 사람이 가장 본보기로 될수 있는 원형을 중심으로 하여 주위세계에 존재하는 무한한 사물현상을 분류하고 정리해나가는 과정으로 리해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기의 일정한 경험에 기초하여 대상을 파악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경험은 사람이 자기의 실천활동과정에 체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다. 여기에는 사람이 사회적활동을 해오는 과정에 개별적으로 얻거나 집체적으로 얻은 경험이 다 속한다.

경험은 실천활동과정에 이루어지는것만큼 리론적지식과 구별된다.

리론적지식과 구별되는 경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그것이 아직은 덜 일반화되었으며 생동하고 구체적이라는데 있다. 경험은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 시간속에서 부단한 실천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며 개별적인 성격을 띤다. 그것은 유사한 다른 경험들과의 관계속에서 대비되고 분석, 종합된 지식이 아니다.

경험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그것이 실천활동과 구체적인 현실을 통하여 증명된 지식이라는데 있다. 실천은 진리의 기준이고 지식은 현실의 반영이며 경험은 실천활동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현실속에서 이루어진다. 실천과 현실을 떠난 경험이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

경험은 리론적지식과 구별되면서도 그와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즉 실천적경험을 일반화하면 리론적지식이 되고 리론을 지침으로 실천활동을 벌리면 경험이 형성된다.

사람은 어떤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거나 리해할 때 그리고 그 개념을 사용할 때에 자기가 잘 알고있는것들가운데서 본보기로 될수 있다고 보아지는 전형을 먼저 생각하고 그에 비추어서 사고한다고 볼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창조하여 리용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개념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할수 있다.

인지의미론에서는 인간이 진행하고있는 개념화가 반드시 필요충분징표를 가지고있는가, 가지고있지 않는가 하는데 따라 객관적으로 규정된다기보다 전형적인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 령역을 넓히는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간주한다.

물론 인지의미론에서는 개념화를 진행할 때에는 단순히 개념의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여 고립적으로 파악하는것이 아니라 그 개념의 내용이 어떤 표상과 감정, 운동감각으로 포착되고있으며 어떤 물리적 및 언어적환경, 사회적관계를 배경으로 하는가 하는 측면과도 밀접히 련관시켜 연구한다.

실례로 《직각변》이라는 개념은 그것이 가리켜 나타내는 선분만이 아니라 《직3각형》이나 《직4각형》이라는 환경(인지령역)을 배경으로 하여야 정확히 이해할수 있다.

인지의미론에서 개념화를 통하여 언어의 의미가 형성되고 발전풍부화된다고 할 때 그것이 주관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것은 개념은 그것을 파악하는 사람의 머리속에서 형성되는것으로 하여 비록 주관적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 개념에 담겨진 내용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것이기때문이다. 즉 언어의 의미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저절로 형성되는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인지활동의 결과에 객관적으로 형성되는것이다.

개념화를 통하여 사람들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경우 한 단어의 의미가 때로는 서로 다르게 이해될수도 있다.

실례로 《책》이라고 할 때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그림책과 같은것을 원형으로 생각할수도 있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배우는 교과서나 참고서, 학습장 같은것을 원형으로 생각할수도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인지의미론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언어학리론을 새로운 높이에로 더욱 발전풍부화시켜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